



보도 일시	2022. 11. 28.(월) 15:00	배포 일시	2022. 11. 28.(월)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과장 진명호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윤여솔 (044-201-7121)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 행안부 ·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 맞손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 보령시(시장 김동일), 서산시(시장 이완섭), 서천군(군수 김기웅), 청양군(군수 김돈곤), 홍성군(군수 이용록), 예산군(군수 최재구), 태안군(군수 가세로)
-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 “충남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상수도 직영 기업의 혁신 우수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본보기(모델)이다”라며,
 -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진명호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윤여솔 (044-201-712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익 (044-205-3961)
		담당자	사무관	김미영 (044-205-3969)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현 (041-635-2730)
		담당자	팀 장	이재흥 (041-635-4464)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이하 “시군”)”,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수도경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청남도, 시군,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충청남도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통합이행 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2. 시군은 지방상수도 통합 기반 마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협약 시군 간 통합 추진 등에 협력한다.
3.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4.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당사자는 협약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협약종료를 위한 일방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 협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기관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8일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보령시

시장 김동일



서산시

시장 이완섭



서천군

군수 김기웅



청양군

군수 김돈곤



흥성군

군수 이용록



예산군

군수 최재구



태안군

군수 가세로



환경부

장관 한화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